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 나서

익산시의회, 국외출장 투명성 · 실효성 제고 '기대'
김경진 의장 "국외출장 외유성 논란 불식에 노력"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가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을 통해 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정노력에 선도적으로 나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6일 의회운영위원회는 '익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하고 원안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월 행정안전부가 공무국외출장의 내실화를 위해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권고한 것을 바탕으로 심사위원회 설치 및 심사기준 등을 보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국외출장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의 지방의원 수를 2명 이하로 제한하고 민간위원은 공모나 외부추천방식으로 구성된다. 또한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기존에는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누리집에 게시하였으나 출국 45일 이전에 게시하여 10일 이상의 주민의견수렴 후 심사위원회 의결을 받고 그 의결서를 첨부해 공개하도록 사전검토 단계를 대폭 강화했다.

또한 기존 출장 후 1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와 상임위 또는 본회의에 결과보고하던 것을 60일 이내에 심사위가 국외출장의 적법성과 적정성에 관해 심의하고 그 결과를 기재하도록 개정했으며, 징계 사유 발생 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출장보고서의 누리집,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게재와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등 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진 의장은 "국외출장이 선진사례 습득과 의정역량 강화라는 본래 목적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출장 전에는 사전심사를 통해 면밀히 점검하겠으며 출장 후에는 그 결과가 의정활동과 정책과제 발굴의 밑거름이 되도록 해 외유성 논란을 불식시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익산시의회는 오는 13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익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포함해 상정된 안건들을 심의 · 의결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해빙기 공공 건설현장 안전점검

건설 현장 22곳 대상 진행… 안전사고 관련 철저한 대비 당부

군산시가 해빙기를 맞아 군산시가 발주하여 진행 중인 공공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점검 장소는 터파기 공사, 대형 건축공사가 진행되는 건설 현장 22곳이었으며, 점검단은 동절기 동안 공사가 중지된 건설 현장에서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위험 요소를 살폈다. 또한 공사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사항도 동시에 점검하였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공사 투명성 확보 및 견실 시공을 유도하기 위한 공사실명제 이행 △시인성 확보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 보강 △절개사면 및 법면 유실 방지를 위한 녹생토 등 보호시설 신속 설치 및 보완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한 임시포장 표기와 부직포 설치 △작업자 안전을 위한 건설기계 작업반경 내 접근금지 표지 설치 등으로 시정 조치를 요구하였다.

아울러, 동절기 공사 중지를 해제하고 공사를 재개하는 현장은 해빙기에 빈발하는 △굴착면 및 지반 붕괴 사고 △맨홀 등 밀폐된 공간 작업 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관련 철저한 대비와 주의를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군산시 감사담당관은 "군산시는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적극행정 추진을 목표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한 건설현장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점검은 군산시와 시민감사관이 합동으로 2월 19일부터 2월 26일까지 6일간 진행됐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2025년 환경친화형 공동방제 지원사업' 추진

옥산 · 서수 · 나포 · 성산 · 옥구 · 옥서 등 총 6개 시범단지로 확대 … 31일까지 신청

군산시가 군산 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2025년 환경친화형 공동방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시는 친환경 약제를 사용한 '환경친화형 병해충 지원방제'로 △농가의 경영비 부담 감소 △군산 쌀의 고품질 이미지 구축으로 향후 친환경 인증 면적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2020년부터 진행된 사업은 2023년까지는 벼 친환경 재배단지(10ha 이상) 및 인근 관행 벼 생산단지 1,806ha에 친환경 방제 약제 및 방제비를 지원했다.

2024년에는 7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존 벼 친환경 재배단지와 시범단지(옥산, 서수)를 추가한 총 1,759ha에 친환경 방제 약제 지원과 병해충 적기 방제를 2회 실시했다.

특히 작년 이 사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던 벼멸구 등 벼 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시는 전년보다 약 8억4,000만원이 증액된 15억9,000만원 예산을 투입해 방제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사업 추진 면적은 벼 친환경 재배단지와 옥산, 서수, 나포, 성산, 옥구, 옥서지역 등 총 6개 시범지역을 포함 총면적 4,535ha이다.

방제 약제 지원단가는 1회 방제기준 ha당 17만5,000원 한도로 2회 방제분 약제비를 지원하며 방제 비용은 농가부담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자 확정, 약제 선정 · 구입 및 방제 관련한 사항 등은 신청 · 접수 후 군산시 환경친화형 공동방제 협의회 및 약제선정위원회를 통해 결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3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계에 신청하면 된다.

김상기 먹거리정책과장은 "올해 시범지역을 확대하여 벼 재배농지에 친환경 공동방제를 추진함으로써 병해충 발생 예방 및 군산쌀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앞으로 군산시는 이번 사업을 군산시 전 지역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며, 기후변화로 인한 병해충 피해 최소화 및 군산 쌀의 안전성과 품질 우수성을 더욱 부각할 계획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지역 경력보유여성 경제활동 촉진

익산시의회 최재현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위원장(모현, 송학)이 발의한 '익산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이 11일 제268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익산시 경력보유여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권익증진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사용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 △연도별 시행계획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 △업무의 위탁과 홍보, 포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최재현 위원장은 "이제는 '경력단절'이라는 부정적인 용어보다 '경력보유'라는 긍정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경력 공백 기간 쌓은 경험과 역량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경력보유여성이 경제 활동과 사회참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강화되고 정책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최재현 위원장은 지난 2월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 귀금속 제조업 협동조합, 공식 출범

익산시는 익산 귀금속 제조업 협동조합(이사장 정지필)이 설립 등기를 마치고 공식 출범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귀금속 산업 재도약을 위해 지속해서 지역 업체들과 판로 개척, 마케팅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에 귀금속 업체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그동안 여러 단체로 나눠 운영되던 주얼리 산업 단체 통합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했다.

지난해 12월 창립총회를 개최해 조합 설립에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심의 · 의결하고, 이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법인 등기를 완료했다.

협동조합은 △국내외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 △원자재 공동 구입 및 공동작업장 확보 △공동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얼리 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신규 창업을 지원해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정지필 이사장은 "익산 귀금속 업계의 적극적 협조와 단합된 힘으로 협동조합이 탄생했다"며 "지역 주얼리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합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석제품전시홍보관 진로 · 현장체험 운영

익산시가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진로를 고민할 수 있는 색다른 체험의 장을 제공한다.

익산시는 초 ·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익산석제품전시홍보관에서 석재 산업과 홀로그램 기술을 결합한 직업 진로 ·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학생들은 석재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을 통해 직업 세계를 탐색하고, 홀로그램 기술을 활용한 신비로운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다.

체험 프로그램은 전문 해설사의 안내와 함께 진행된다. 전시관람과 익산석을 이용한 소원석 꾸미기, 홀로그램 체험, 야외 정원 및 석공예품 관람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오는 6월 황등산업석산 전망대가 완공되면, 학생들은 실제 돌이 채굴되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된다.

해당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자세한 문의는 익산석제품전시홍보관(063-859-5599, 5597) 또는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 관리팀(070-7705-6615)으로 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시행 추진

군산시가 올해 지방세 정기세무조사를 앞둔 기업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시행한다.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는 해당 법인이 세무조사 시기를 스스로 선택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고 기업 운영에 바쁘고 어려운 시기를 피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는 3월 중에 법인에게 시기 선택제 안내에 들어갈 예정이다.

올해 군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시 자체적으로 선정한 법인 44개 △도 · 시 · 군 합동 조사 법인 16개로 총 60곳이다. 도 · 시 · 군 합동 조사 법인의 경우 전라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선정했다. 조사는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게 된다.

/군산=이재춘 기자